5%대 시중금리 4%대로 내림세

서민 돈 불릴 곳 마땅찮다

여윳돈 확보한 시중銀, 정기예금금리 속속 인하

올초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거듭했던 시중은행 금리가 내림세로 돌아섰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지난 1월 중순 연 5%대에 육박했던 금리가 2월말 현재 4%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고금리 특판예금 판매를 통해 자금을 확충한 은행들이 금리인하를 통해 자금 수요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은행은 "대표상품인 '플러스 다모아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를 현재 연 4.6%로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자금 확보 추세를 고려할 경우 소폭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중순 5%대를 유지했던 광주·전남 신협들도 정기예금 금리를 4.7%선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2월 정기예금 금리를 종합 집계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현재 금리가 4%대 후반까지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말 대표정기예금 상품인 '국민수퍼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를 연 4.15%로 고시했다. 1월 초 최고 4.7%의 금리를 제시했던 '고객사랑 정기예금' 보다 금리가 0.55%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신한은행도 한 달새 정기예금 금리를 0.5%포인트 이상 내렸다. 신한은행 '민트 정기예금'의 지난 1월 중순 금리는 최고 연 4.6%에 달했지만, 지난달 23일에는 최고 4.1%로 낮아졌다.

우리·하나·외환은행 등도 잇따라 정기예금 금리를 국민·신한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렸다.

은행권은 당분간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소폭 오름과 내림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은행의 한 관계자는 "연초 특판예금 판매를 통해 금융권이 상당한 여유자금을 확보한 만큼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금리가 큰폭으로 오르내리기 보다는 당분간 보합세에 가까운 인상·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알록달록 봄맞이 패션 4일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이마트) 패션스트리트 시계매장에서는 봄에 어울리는 알록달록한 컬러의 패션 젤 시계가 선보였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지역경제 규모 맞게 세무조사

광주청 지난해 186곳… 지방청 중 가장 적어

전국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광주청의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 기업수, 매출액 등 지역경제 규모가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세청이 4일 발표한 2009년 지방청별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현황에서 드러났다.

지방청별로 선정 기업 수는 서울청이 1천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819곳, 부산청 398곳, 대전청 230곳, 대구청 207곳, 광주청 186곳 순이었다.

전체 기업(2천943곳)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서울이 0.81%, 부산청 0.79% 중부청 0.77%, 대구청 0.71%, 대전청 0.69%, 광주청 0.54% 등으로 같은 순서였다.

관할 청별 전체 법인수는 서울청(13만6천865개), 중부청(10만6천566개), 부산청 (5만527개),광주청(3만4천674개), 대전청(3만3천444개), 대구청(2만9천120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조사 비율이 높고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기업은 신고 내용을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방청별·세무서별로 전체 수입금액 규모,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대상을 균형있게 배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개정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도 지금까지 지켜온 이런 원칙이 명문화됐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세행정변화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술병 제조비용 아낀다

보해 등 주류업계 빈병 공동사용 협약

주류업계에서는 "술 판매는 병장사"라고 한다.

이런 속사정과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주류업계가 상생방안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와 (사)한국용기순환협회는 4일 ㈜금복주, ㈜무학, 보해양조㈜ 등 3개 소주업체와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유사한 협약을 체결한 ㈜진로, ㈜선양, ㈜충북소주, 하이트주조㈜, 대선주조㈜, ㈜롯데주류BG, ㈜한라산을 포함해 전국 소주 업체 모두가 360밀리리터(㎖) 병의 공동 사용에 참여하게 됐다. 360㎖ 병은 전체 소주 출고량의 96%를 차지한다.

주류사들은 각 회사 브랜드를 주류병에 새기지 않음으로써 공동으로 병을 사용할 수 있어 원가절약, 친환경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이해가 맞아 떨어져 협약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병 투입 비율이 19%에서 13%로 감소해 연간 329억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 저신용 자영업자에 64억 지원

내달부터 1인당 300만원내

다음달부터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나 무등록 개인사업자 등도 '지역희망 금융사업' 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4일 "미소금융 등을 통해 저소득자와 신용도가 낮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업 등 고금리 사금융 시장의 유입이 계속됨에 따라 추가로 '지역희망 금융사업'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희망 금융사업의 총예산은 64억원이며, 1인당 300만원 내에서 연 4% 금리, 3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대출대상은 개인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자영업자로, 3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금융소외자, 영세자영업자, 무등록 개인사업자 등 모두 2천2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비는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금리인하에도 이자비용은 역대 최대

가계 대출증가에 금융권 금리 찔끔 인하 탓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크게 늘어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명목 기준 6만6천981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소득 증가율(1.5%)의 배를 넘었다. 연도별 이자비용은 2003년 4만3천799원, 2005년 4만8천177원, 2007년 5만4천497원, 2008년 6만4천939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작년 이자비용은 6년 전보다 52.9%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을 연간으로 계산하면 80만3천772원이다. 여기에다 통계청 추계가구(1천228만가구)를 적용하면 전체 가구의 이자비용은 9조8천703억2천16만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실제 가계가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서 1인 가구나 농어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까지 포함한 총가구를 감안하면 이자비용은 더 늘어난다. /연합뉴스